풍성한 작품감상

추석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전시행사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어느 때보다 긴 이번 연휴에는 전시장에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작가들의 상상력 넘치는 작품을 통해 문화 충전도 하고 쉼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휴에 가 볼 만한 대표 전시를 소개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루나로 떠나는 쉼의 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공〉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전시된 오용길 작 '사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11월7일까지 'Meet Design'
테크놀로지·K-컬처·비즈니스…
추석연휴 캐릭터 그리기 진행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10월31일까지 전통·현대 만남
오용길 '사계'·류회민 '계곡' 등
15개국 해외작가 레지던시도

◇문화와 기술 비즈니스의 만남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지난 7일 개막한 제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11월 7일까지)는 디자인의 가치를 담아낸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다. 디자인과 기술, 라이프스타일, 문화, 비즈니스가 융합된 작품은 예술적 가치는 물론 삶과 먹거리(비즈니스)의 미래도 가늠할 수 있다.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열리는 디자인비엔날레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전면 대면행사로 열리고 있다.

본전시가 열리는 1관 '테크놀로지'에서는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한 친숙한 공간들을 만날 수 있다. 스마트 홈 가전은 과거 주방과 비교할 수 있어 시간 흐름과 맞물린 기술, 디자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4560디자인하우스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모티브로 구현돼 있다. 독일을 비롯해 이탈리아, 덴마크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심미적이면서도 미니멀리즘적인 디자인의 양상을 만난다.

인간의 삶과 디자인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2관 라이프스타일관에서는 개인 맞춤화 디자인, 세대에 따른 생활공간의 변화, 친환경 디자인 등이 소개돼 있다. 남택진 교수연구실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안전한 집'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공간 디자인으로 시선을 모은다.

버섯 균사체를 토대로 한 이색적인 작품 '최후에'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사이클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 폐기물을 활용해 패키지나 제품을 만들고 흙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한다.

제3관은 K-컬처를 주제로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구현했다. K-조형을 비롯해 K-POP, K-뷰티, K-웹툰 등 다양한 주제로 표현된 디자인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특히 BTS가 머물며 촬영한 이후 더욱 유명해진 전북 완주의 핫플레이스 '아원고택'은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이 참여했다.

4관 비즈니스관에서는 디자인과 비즈니스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iF 디자인어워드의 '소셜 디자인'은 디자인 솔루션, 다시 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눈길을 끈다.

제임스 다이슨과 스티브 잡스, 조나슨 아이브, 조게비아 등 디자인 혁신가 12인 이야기는 디자인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콘텐츠다.

다양한 특별전도 마련돼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생 생 쌩 : 생태를 만나다'를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동구미로센터에서는 공예디자인을 매개로 문화적 결혼을 제안하는 '순수의 결합_공예로 인연을 만나다'가, 조선대 장황남정보통신박물관에서는 TV 등 디바이스 발전사를 볼 수 있는 'Re : 제3의 물결'이 진행된다.

또한 추석 연휴에는 '그림책 주인공 캐릭터 그리기'가 비엔날레전시관 이벤트홀 및 야외광장 등에서 열린다. 캐릭터 그리기는 오는 28일~29일, 10월 1~2일 등 1일 2회씩 진행된다.

◇수묵화의 변신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지난 1일 개막한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10월 31일까지)는 동양적인 전통 수묵화와 현대적인 수묵화를 만나는 자리다. 수묵화가 인접 장르를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새 작품으로의 변신과 진화를 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 수묵비엔날레 주제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산과 물이 융합되고 변주되는 양상을 개성적인 붓질로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본전시가 열리는 목포 문예회관 1관에는 '산-물, 바람-빛'과 '목포는 항구다'를 주제로 한 작품 등이 내걸려 있다. 오용길 작가가 화선지에 수묵담채를 그린 '사계'는 화사하면서도 단아한 색채가 돋보인다. 권세진 작가의 '바다를 구성하는 1482개의 드로잉 1482'는 자연의 흐름처럼 감정이 종이에 번져 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류회민 작가의 '계곡'은 자연에 대한 감정이입을 대상의 재현이 아닌 주관적 해석으로 담아냈다.

15개국 해외작가들의 레지던시가 열리는 공간도 관객들의 발길을 붙든다. 베트남 작가 닥닥오의 '복'(福)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슈가 된 상황을 물고기에 빗대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정통 수묵화의 멋을 보여주는 우용민 작가의 '눈꽃'은 겨울 지리산을 그리기 위해 한겨울 내내 지리산에 올랐던 작가의 노고가 고스란히 전해온다. 요요진 작가의 '눈물, 평화' 작품은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노래가사의 일부를 작품으로 표현해 눈길을 끈다.

진도 운림산방 소치 1·2관에는 '화담', '지자요수 인자요산'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인화가들의 산수화와 미디어아티스트 6인의 인터렉티브형 전시다.

이밖에 특별전시관 3개관(광양도립미술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해남 대흥사)을 비롯해 14개 시·군 18개소에 열리는 시·군 기념전도 수묵의 멋과 향기를 전한다.

특히 광양 도립미술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조우'를 개최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가위 꽃구경

진도군 임회면 '송가인 공원'에 수만송이의 백일홍이 피어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억만 송이 국화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순천시 제공〉

'송가인 공원'에 백일홍 활짝
순천만정원박람회 억만송이 국화
황룡강변 가을은 형형색색 꽃대궐

◇수묵비엔날레 관람하고 '송가인 공원'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송가인 공원'에 백일홍이 활짝 피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운림산방 전시 관람 후 그냥 돌아가기 아쉽다면 진도군 임회면 '송가인 공원' 꽃구경을 추천한다.

'송가인 공원'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으로 화제를 모은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이름을 딴 공원이다. 송가인이 나고 자랐던 임회면 앵무리 길목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송가인길) 한쪽에 자리한 드넓은 공원으로, 1만3000여 ㎡에 달한다.

외지인들도 한눈에 찾기 쉽게 '송가인 공원'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뒤편으로 수만송이의 백일홍이 피어있다. 가족과 함께 추억사진을 찍으며 공원 내 팔각정 정자에 앉아 만개한 백일홍을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송가인 공원에서 꽃을 구경하고 송가인까지 만날 수 있다면 금상첨화. 명절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가수 송가인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진도토요민속여행 특별공연으로 송가인이 출연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주민들을 위해 공연할 예정이다.

◇순천만정원박람회 억만 송이 국화 향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억만 송이의 국화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추석 연휴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43만 그루의 가을꽃을 심었다는 소식이다.

국가정원 노을정원에는 노랑·분홍·빨강 국화가 가을의 사랑을 표현하고, 네덜란드 정원 초록 풍차 앞에도 국화꽃 무리와 국화꽃 조형물이 이색풍경을 자랑한다. 나르샤 정원에는 자수 화단으로 연출한 국화꽃밭이, 오천그린광장에는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국화꽃밭이 펼쳐져 있다. 이외에도 동천 물이 흐르는 개울길 광장을 따라 빨강 샐비어와 주황 마리골드가 발길을 붙들고, '쉴랑게' 인근 나눔 숲과 비오톱 습지는 황화 코스모스가 하늘거린다.

명절 연휴기간인 27~29일에는 정원박람회 공식 상징물인 '루미오와 뚱리엣'이 순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루미오와 뚱리엣' 사진을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행사 게시물에 박람회 응원 댓글을 달면 선물도 받는다.

◇가을꽃 축제 앞둔 황룡강변= 광주와 가까운 장성 황룡강변의 가을은 꽃대궐을 방불케 한다. 10월 7일부터 개최되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앞두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황룡강변을 따라 조성된 5만여 평의 대규모 테마정원에는 매년 10월이면 코스모스, 청일홍, 국화, 해바라기 등 가을꽃이 만개한다. 올해는 보랏빛 버들마편초와 촛불맨드라미도 추가로 심었다. 곳곳에 포토존이 설치돼 있어 인생사진을 촬영하기에도 더할나위 없다.

가을꽃 축제의 많은 관광객이 부담스럽다면 축제가 시작되기 전인 명절 연휴기간 한적하게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다.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밀며 여유로운 꽃나들이로 황금연휴를 즐겨보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